

성인의 데이트폭력 가해요인*

홍 영 오**

국 | 문 | 요 | 약

본 연구는 데이트폭력의 가해실태와 가해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데 비해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해행동을 크게 통제행동, 심리적·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추행, 성폭력, 상해 등으로 구분하여 실태를 분석한 결과, 통제행동이 71.7%로 가장 높았고, 성추행 37.9%, 심리적·정서적 폭력 36.6%, 신체적 폭력 22.4%, 성폭력 17.5%, 상해 8.7%의 순으로 나타났다. 데이트 상대에 대한 가해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폭력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 통제경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자존감, 회피애착, 불안애착, 폭력정당화, 성장기 아동학대피해경험, 경계선 성격장애, 교제당시의 나이차, 심리·정서적 폭력에 대해서는 자존감, 회피애착, 폭력정당화, 성장기 부모폭력 목격경험, 성장기 아동학대피해경험, 경계선 성격장애, 교제당시의 나이차, 및 교제기간, 신체적 폭력에 대해서는 폭력정당화, 성장기 부모폭력 목격경험, 성장기 아동학대피해경험, 경계선 성격장애, 및 교제기간, 성적 폭력에 대해서는 폭력정당화, 성장기 아동학대피해경험, 경계선 성격장애, 교제당시의 나이차, 교제당시의 본인수입, 상해경험에 대해서는 폭력정당화, 성장기 아동학대피해경험, 경계선 성격장애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시사점과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 주제어 : 데이트폭력, 폭력정당화, 아동학대피해경험, 경계선성격장애

* 이 논문은 2015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추가 분석을 한 것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심리학 박사

I. 서론

최근 연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매스컴에서도 이에 대한 사례들이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다. 연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발생률이 높지 않을 것이며, 폭력이 있다 하더라도 폭력의 강도 면에서는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각할 뿐만 아니라 살인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최근의 사례를 보면, 여자친구의 집에서 같이 영화를 보다가 여자친구가 졸았다는 이유로 빗자루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10대,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여자친구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고 주먹으로 마구 때린 대학생,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자친구를 30분 넘게 폭행을 가해 두개골이 깨지게 만든 30대, 사귀던 여성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남자관계를 캐물으면서 때리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50대 등 연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10대와 20대 뿐만 아니라 나이를 불문하고 심각한 폭력이 행해지고 있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을 통해 2015년에 애인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범죄를 살펴보면, 먼저 전체 살인범죄자 1,050명 중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193명을 제외한 857명 중 102명(11.9%)이 애인이었으며, 상해는 93,929명 중 관계를 알 수 없는 8,786명을 제외한 85,143명 중 2,750명(3.2%), 폭행은 전체 220,704명 중 관계를 알 수 없는 101,275명을 제외한 119,429명 중 3,943명(3.3%), 손괴는 전체 32,097명 중 관계를 알 수 없는 4,878명을 제외한 27,219명 중 1,288명(4.7%), 성폭력은 전체 27,199명 중 관계를 알 수 없는 3,989명을 제외한 23,210명 중 802명(3.5%)이 애인으로 상당히 많은 범죄자들이 애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살인범죄는 11.9% 즉 10명 중 1명 정도는 애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애인 관계에서 있었던 폭력에 대한 신고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사생활의 노출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애인사이에서 벌어진 폭력은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등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의 부족 등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 발생 사건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홍영오·연성진·주승희, 2015).

최근 영국에서는 교제 중인 남자친구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가정폭력전과공

개법' 일명 '클리어법'을 시행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여성폭력방지법' 등 연방과 주 차원에서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대책을 다각도로 수립하여 범죄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트폭력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기는 하나 주로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데이트폭력에 대한 연구는 성폭력이나 신체적 폭력이 주를 이루고 있을 뿐 통제행동이나 심리적·정서적 폭력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지 않았다(홍영오 등,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청소년이나 대학생이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데이트폭력 문제를 다루었다. 청소년이나 대학생만이 데이트를 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최근에는 비혼 또는 미혼의 비율이 예전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라 특정 연령층만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데이트폭력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을 대상으로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1) 폭력의 유형별(통제행동, 심리·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폭력, 상해 등) 가해실태, 2)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결과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데이트폭력의 정의 및 유형

데이트폭력에 대한 정의 및 유형은 학자들마다 상이하다. 먼저 Straus(2004)는 데이트를 “당사자 중의 한명이 관계를 종료할 때까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 보다 헌신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관계를 계속하기 위해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사회적 상호작용과 공동활동을 하기 위해 만남을 갖는 두 사람의 관계로 정의”하였다. 데이트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실제 데이트 행동은 개인 차이, 인종 및 사회경제적 집단 차이, 역사적 또는 문화적 맥락 차이 등 여러 차원에 따라 상이하지만, 두 사람으로

이루어지고 양 당사자가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한다는 점에서는 구조적으로 유사성이 있다(Straus, 2004; 홍영오 등, 2015에서 재인용).

데이트폭력의 연구범위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상의하다. Sugarman과 Hotgaling(1989)은 신체적 폭력에만 한정되었고, Makepeace(1981)는 성폭력과 신체적 폭력에만 한정하였으며, Anderson과 Danis(2007) 등은 신체적 폭력에 언어적 폭력, 정서적 학대 및 겁을 주는 행동 등 심리적 폭력을 포함시켰다. 사실 신체적·성적 폭력 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력이나 위협적인 행동 역시 상대에게 치유하기 쉽지 않은 상처와 고통을 줄 수 있다. Straus, Hamby, Boney-McCoy, 및 Sugarman(1996)은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서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을 포괄적으로 지칭하였다. 이에 비해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2010)는 물리적 폭력, 성적 폭력, 심리적 폭력에 덧붙여 통제 행동을 포함시켰고, 우리나라에서는 이화영(2014)이 통제행동(controlling behavior)을 포함하여 연구하였다. Lloyd, Koval, 및 Cate(1989)는 심리적 폭력이 신체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한 개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신체적 폭력의 전조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연구주제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서경현, 2009에서 재인용). 일반적으로 신체적 폭력에는 심리적 폭력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더 심각한 수준인 신체적 폭력만을 데이트폭력으로 간주한 학자들이 있는 반면 신체적 폭력으로 발전하지 않는 심리적 폭력도 탐구할 가치가 있기에 이 역시 연구하여야 한다는 학자들도 있다(서경현, 2009). 심지어 한국사회에서는 상대의 팔을 비틀거나 밀치는 행위는 폭력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서경현, 2009). 국내에서는 친밀한 파트너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서 데이트 또는 데이트 폭력, 이성교제 폭력, 연애평력, 구애기 폭력 등 다양하게 정의되었다(홍영오 등, 2015).

본 연구에서는 예전에 비해 최근 폭력에 대한 인식도 엄격해졌고, 심리적·정서적 폭력이나 통제행동 역시 피해 당사자에게는 심각한 고통과 상처를 줄 수 있기에 데이트폭력을 광범위하게 정의하였다. Straus(2004)의 데이트와 폭력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하되 통제행동을 포함하여, 데이트폭력을 ‘당사자 중의 한명이 관계를 중

료할 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보다 헌신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관계를 계속하기 위해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사회적 상호작용과 공동활동을 위해 만남을 갖는 두 사람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폭력, 심리적·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 및 통제 행동'으로 정의하였다(홍영오 등, 2015).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데이트폭력의 유형은 학자들마다 상이하나 본 연구에 포함된 폭력의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신체적 폭력은 팔을 비틀거나 꼬집는 행동, 힘껏 움켜잡은 행동, 거칠게 미는 행동, 뺨을 때린 행동, 발로 찬 행동,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으로 때린 행동, 목을 조른 행동, 심하게 마구 때린 행동, 뜨거운 물이나 불로 화상을 입히는 행동, 흉기로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힌 행동 등을 의미한다(홍영오 등, 2015).

심리적·정서적 폭력은 학자들에 따라서는 언어적 폭력으로 구분하기도 하는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함을 지르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 등의 폭력과 화가 나서 발을 세계 구르거나 문을 세계 닫는 것,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악의에 찬 말을 하는 것, 상대방의 소유물을 만지거나 부수는 것, 상대방을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것, 때리거나 물건을 부수겠다고 위협하는 것 등의 폭력을 심리적·정서적 폭력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합쳐 정서적 폭력으로 지칭하였다(Hamby & Sugarman, 1999; Murph & O'Leary, 1989; Straus, et al., 1996: 홍영오 등, 2015에서 재인용).

성적 폭력은 성희롱(원하지 않는데도 얼굴, 팔, 다리 등을 만지거나 기분에 상관없이 키스를 하거나 원하지 않는데도 애무를 하는 행동)에서 신체적 폭력을 쓰진 않았으나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유사성교나 성관계를 하기 위해 위협을 하거나 흥기를 사용하는 등에 이르기까지를 포함한다(Cornelius, & Resseguie, 2007; Straus, et al., 1996; 홍영오 등, 2015에서 재인용).

통제행동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2010)는 상대방을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고립되게 하거나 행동을 감시하거나 교육, 직업, 의료 및 재정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 정의에는 부부간에만 적용되는 유형도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옷차림을 제한하는 행위, 핸드폰, 이메일, 개인블로그거나 홈페이지 등을 점검하는 행위, 씨클이나 모임 활동을

못하게 하는 행위, 통화가 될 때까지 계속 전화하는 행위,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행위, 다른 사람과 통화를 못하게 하는 행위,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하는 행위, 친구들을 못 만나게 하는 행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싫어해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상대방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 두게 하는 행위, 다른 이성을 만나는지 의심하는 행위만을 측정하였다(홍영오 등, 2015).

2. 데이트폭력에 대한 이론

데이트폭력에 대한 이론적 틀은 크게 사회구조적 이론(Sociocultural Theory), 사회 학습 이론(Social Learning Theory), 개인차이 이론(Individual Theory)으로 구분한 Dardis, Dixon, Edwards, 및 Turchick(2014)의 연구를 바탕으로 간략히 살펴본다(홍영오 등, 2015).

사회구조적 이론은 크게 여성주의 이론(Feminist Theory)과 강제이론(Coercion Theory)으로 나눌 수 있다. 여성주의적 분석에 따르면 폭력은 남성과 여성 간 권력과 통제에 대한 투쟁을 야기하는 가부장적 사회시스템의 결과로서, 대인간 폭력 역시 남성의 지배성과 여성의 순종이라는 기존의 권력 구조가 표현된 것으로 본다(Shorey, Cornelius, & Bell., 2008). 데이트폭력은 성적으로 불평등한 사회적·제도적 맥락 내의 관계에 있어 남성이 여성에 대해 권력과 통제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Dardis, et. al., 2014). 권력 및 통제이론가들에 따르면 남성들이 수입이나 교육수준과 같은 자원 또는 관계 내에서 지각된 권력이 부족할 때 권력을 유지하거나 다시 회복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한다는 것이다(Dardis, et, al., 2014). 즉 권력의 불평등이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행동을 야기한다고 설명한다(Shorey, et. al., 2008).

강제이론(Coercion Theory)에 따르면 강제적 통제는 협박, 격리, 통제로 구성된다. 이런 통제는 여성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며 신체적·성적·언어적 폭력이 수반되는데, 이런 유형의 통제는 여성보다 남성이 주로 활용한다. 그 이유는 자원이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 보다 많이 배분되는 사회구조적 불평등 때문이다(Dardis, et. al., 2014에서 재인용). 이 이론을 주장하는 연구에서 주로 탐구되는 변

인은 성, 성역할신념, 사회경제적 수입, 권력과 통제에 대한 만족감, 통제동기 등이 다(Dardis, et. al., 2014; 홍영오 등, 2015에서 재인용).

데이트폭력을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으로 사회학습이론이 있다. Bandura(1977)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행동은 관찰과 모방 및 모델링으로부터 학습된다고 주장하였다. 데이트 상대에 대한 폭력 역시 일반 행동과 마찬가지로 관찰, 모방, 모델링을 통해 학습한다고 본다. 사회학습이론은 크게 세대간 전이이론(Intergeneration Transmission of Violence Theory)과 배경-상황이론(Background-Situational Theory)으로 구분할 수 있다(Dardis, et. al., 2014). 세대간 전이이론에 따르면 성장기의 아이들이 부모 상호간의 폭력을 목격하고 폭력을 모델링하는 것은 청소년과 성인들의 폭력행동 가능성을 증가시킨다(Dardis, et., al., 2014; Fang & Corso, 2007; O'Leary, 1988).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가족 내에서의 폭력 행동의 모델링이 간편성이라는 장점이 있긴 하나 데이트폭력을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비판하며 모델링의 유용성이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Follette & Alexander, 1992; Shorey, et. al., 2008; 홍영오 등, 2015에서 재인용).

이에 비해 보다 포괄적인 모형으로 세대간 전이이론이 확장된 배경-상황이론(Background-Situational Theory)이 있다. 이 이론은 커플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하지 발생하지 않을지를 결정짓는 것은 배경요인(학대의 경험 또는 목격, 공격적인 성격 특성, 공격경험, 각성수준, 정신병리)과 상황요인(대인간 갈등, 관계만족도, 문제 해결기술, 약물남용, 의사소통 스타일)의 상호작용이라고 설명한다(Dardis, et. al., 2014; Riggs & O'Leary, 1989).

마지막으로 개인차이 이론은 성격이론(Personality Theory)과 유형이론(Typology Theory)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성격이론과 유형이론은 기본적으로 폭력의 가해자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일련의 성격 특질(예를 들어, 반사회적 특질, 충동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관하여 몇몇 학자들은 성격 특질과 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을 보다 포괄적인 유형으로 결합시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이 이론을 탐구하기 위한 변인으로는 애착유형,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인 성격특징, 경계선 성격특질 등이 있다(Dardis, et. al., 2014). 애착이론(Bowlby, 1969)에서는 아이들이 어린시절 주 보호자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적 표상이나 관계의 원형을 형성한다고 설명한다. 이

관계의 원형은 시간이 지나도 일관성을 유지하며 관계의 모델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린시절 학대 등으로 불안정한 애착유형을 형성하게 되면 데이트폭력의 가해자가 될 위험성이 높게 된다고 본다(Cicchetti & Howes, 1991; Shorey, et. al., 2008; 홍영오 등, 2015에서 재인용).

3.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요인

데이트폭력 관련 요인은 크게 개인적 요인과 관계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자존감, 성인애착유형(회피애착, 불안애착), 경계선 성격장애, 성장기 부모로부터의 학대피해 경험, 성장기 부모 상호간의 폭력 목격 경험 등을 살펴보고, 폭력에 대한 태도요인을 이에 포함하였다.

자존감은 자아의 중요한 측면으로서 행동에 영향을 주는데(Rosenberg, 1965), 데이트폭력에 대한 연구에서도 낮은 자존감은 폭력의 위험요인이고, 높은 자존감은 보호요인으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밝혀졌다(O'Keefe, 1997). 하지만 몇몇 연구에서는 자존감이 데이트폭력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결과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서경현·김봉진·정구철·김신섭 등, 2001; 안귀여루 2006; Jezle, Molider, & Wright, 1996; Makespace, 1981; 홍영오 등, 2015에서 재인용).

개인적 요인으로는 경계선 성격장애가 있는 남성들이 친밀한 파트너에 대한 폭력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ambers & Wilson, 2007; Dutton, 2007; Holtzworth-Munroe, & Stuart, 1994; Lehrner, 2011; Mauricio, Tein, & Lopez 2007; 홍영오 등, 2015에서 재인용).

성인애착은 크게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으로 구분되는데, 불안애착 및 회피애착이 친밀한 파트너를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과 관련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Babcock, Jacobson, Gttman, & Yerington, 2000; Bookwala, & Zdaniuk, 1998; Dutton, Saunders, Starzomski, & Bartholomew, 1994; Kesner, Julian, & McKenry, 1997; Mauricio, & Gormley 2001; 홍영오 등, 2015에서 재인용). 이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불안애착자들은 버림받는 것에 두려움, 분노, 무기력감, 공격성 등의 특징을 보이고, 회피애착자들은 친밀성 또는 접근에 대한 두려움, 방어성, 자기신뢰에 대한 지나친 강조 등의 특징을 보인다. 이 중 불안애착이 특히 친밀한 파트너에 대한 폭력과 관련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불안애착자들은 파트너의 애매한 행동을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으며 급격하게 분노하고 공격적으로 변한다(Babcock, et. al., 2000; Gormley, 2005; 홍영오 등, 2015에서 재인용). 또한 회피애착 역시 남성의 파트너 폭력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abcock, et. al., 2000; Mauricio, & Gormley 2001; 홍영오 등, 2015에서 재인용).

개인적 요인 중 성장기 부모 상호간의 폭력 목격 경험은 데이트폭력의 가해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 상호간의 폭력을 많이 목격할수록 성인기의 연인 관계에서도 이런 폭력행동을 채택하고 모방할 가능성이 높게 되며, 이성친구 또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폭력행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서경현, 2002; 홍영오 등, 2015에서 재인용). 하지만 김예정·김득성(1999)의 연구를 비롯한 몇몇 연구에서는 부모 상호간 폭력의 목격 경험이 데이트폭력 가해와 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서경현·이영자, 2001; 장휘숙·조현각, 2001; Riggs & O'leary, 1996; Stets & Pirog-Good, 1987). 결론적으로 성장기 부모 상호간의 폭력 목격 경험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성있는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고 있다.

성장기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 역시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성있게 보고되지 않았다. 아동기 학대경험이 데이트폭력과 관련 있다는 연구들(김예정·김득성, 1999; 신혜섭·양혜원, 2005; 유선영, 2000; Riggs & O'Leary, 1996; Smith & Williams, 1992)에 따르면, 아동기에 학대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 잘못된 행동을 처벌하기 위해서 또는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족이나 친한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공격해도 무방하다는 무언의 규칙을 가지게 되고 이후 유사한 다른 상황에서 아동기에 관찰한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규칙을 적용하게 된다는 것이다(신혜섭, 2007). 하지만 성장기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데이트폭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연구들도 있다(서경현·이영자, 2001; 장휘숙·조현각, 2001; Foo & Margolin, 1995; O'Keefe, 1997).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개인적 변인 중 데이트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폭력사용과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폭력정당화란 폭력사용에 대한 수용정도로서, 폭력을 갈등 해결의 정당한 방법으로 인정하면 할수록 데이트폭력의 가능성은 증가한다는 것이다(손혜진·전귀연, 2003; 김예정·김득성, 1999; 서경현 등, 2001; 신혜섭·양혜원, 2005; 유선영, 2000; 장휘숙·조현각, 2001; O'Keefe, 1997; Stets, & Pirog-Good, 1987; 홍영오 등, 2015에서 재인용). 이와 유사하게 폭력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데이트폭력을 더 많이 행한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서경현, 2002, 2004; 서경현 등, 2001; O'Keefe, 1997; Stets, & Pirog-Good, 1987).

이 외에 교제기간도 폭력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물론 이 요인 역시 다른 요인과 마찬가지로 연구결과가 일관적이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교제기간이 길수록 폭력발생비율도 높다는 것이다(Alexander et. al., 1991, O'Keefe, 1997; 홍영오 등, 2015에서 재인용). 다만, 성차이가 있어서, 교제기간은 남성의 폭력가해행동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예측요인인 반면 여성의 폭력가해행동의 예측요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 결과도 있다(Luthra & Gidycz, 2006). 국내의 연구에서도 관계만족도와 교제기간은 성별에 따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유형에 상이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제기간이 길수록, 관계만족도는 낮을수록 남학생은 신체적 폭력의 가해가능성이 높은 반면, 여학생은 심리적 폭력의 가해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조인형과 김영희, 2009).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조사는 전문 인터넷 업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체 리서치 패널(110만 패널) 중 교제경험이 있는 19세 이상 64세 미만의 남자를 대상으로 비확률표본 추출방법 중의 하나인 성과 연령별 미혼 인구비율을 고려한 인구비례 할당추출방법을 활용하였으며, 표본크기는 2,000명이었다. 본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

사로 진행되었으며,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설문 조사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각자가 자기기입 방식으로 설문 조사에 응답하였다(홍영오 등, 2015). 조사는 2015년 11월 3일에서 11월 9일에 실시되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홍영오 등, 2015).

가. 폭력가해경험

연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가해경험의 측정은 Straus 등(1996)이 개발한 갈등책략 척도의 개정판(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Form A, : Archer, 1999)을 이용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심리·정서적 폭력 척도 7문항, 신체적 폭력 척도 12문항, 성폭력 척도 7문항, 상해 척도 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척도는 2개의 영역(경미한 수준과 심각한 수준)으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이 외에 성희롱 척도(5문항)와 통제척도(11문항)를 포함하였으며, 이 척도는 각각의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리커트형 척도였다.

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Rosenberg(1965)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 역시 각각의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리커트형 척도로서,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내적 신뢰도 Cronbach α 는 .86이었다.

다. 성인애착유형

성인애착유형(Adults Attachment)은 Brennan, Clarks, 및 Shaver(1998)가 제작한 ‘친밀한 관계에서의 경험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 개정판 척도를 활용하되, 황경옥(2001)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 역시 각각의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리커트형 척도로서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내적 신뢰도 Cronbach α 는 전체 .92, 회피애착 .84, 불안애착 .92였다.

라. 경계선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Scale)는 Morey(1991)가 제작한 척도를 활용하되, 홍상황·김영환(1998)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원래 이 척도는 24문항으로 제작되었으나 홍상황·김영환(1998)의 타당화 연구에서 문항분석과 예비검사를 통해 문항-총점 간 상관이 매우 낮은 1문항을 제외하여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Morey(1991)의 척도에서는 정서적 불안정, 정체성 혼돈, 부정적 관계, 자기손상의 네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홍상황·김영환(1998)의 연구에서는 정서통제, 부정적 관계, 정체감 문제(혼돈), 기분의 안정성, 자기손상, 양가적 관계의 6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의 내적 신뢰도 Cronbach α 는 .89였다.

마. 폭력정당화

폭력정당화 척도(Justification of Violence Scale)는 데이트폭력을 수용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 Foe와 Margolin(1995)의 척도를 서경현과 안귀여루(2007)가 번안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8가지 상황(논쟁 중에 한 사람이 먼저 폭력을 행사할 때, 헤어지자고 위협할 때, 가족/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우습게 만들 때,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나 외에 다른 누군가와 연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밤에 다른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것을 막을 때,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릴 때, 욕이 섞인 호칭으로 부를 때)에서 폭력을 사용해도 괜찮은 지에 대한 동의 정도를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의 점수범위는 8점에서 32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데이트폭력 정당화 척도의 내적 신뢰도 Cronbach α 는 .94였다.

바. 성장기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

성장기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은 Straus, Hamby, Boney-McCoy, 및 Sugarman (1996)이 개발한 갈등척략척도를 활용하여 성장과정에서 경험한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리커트형 척도로서, 9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정서적 학대에 대한 4문항, 신체적 학대에 대한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Murrell, Christoff, 및 Henning(2007)의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폭력가해와 관련되어 있다. 이 척도의 내적 신뢰도 Cronbach α 는 .96였다.

사. 부모 상호간 폭력의 목격 경험

부모 상호간 폭력의 목격 경험 역시 폭력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에 따라, 성장기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을 측정한 방식과 동일하게 Straus, Hamby, Boney-McCoy, 및 Sugarman(1996)이 개발한 갈등척략척도를 활용하여 리커트형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9문항(정서적 학대 4문항, 신체적 학대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척도의 내적 신뢰도 Cronbach α 는 .96이었다.

아. 관련특성

교제와 관련해서는 교제기간, 교제 당시의 연령, 교제 당시의 연령차이 등을 알아 보았다.

이 외에 학력, 월평균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을 측정하였다.

2.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코딩과정과 오류 확인 작업을 거쳐 window 용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가해경험을 측정하는 문항 중 연인에게 한 문항이라도 가해를 행한 경우에는 가해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과 같

이 과반수이상의 응답자가 경험이 없는 발생빈도를 갖는 변수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회귀분석보다는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사용하도록 권장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회귀 분석은 종속변수의 오차(\mathcal{E})의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일정하며 서로 독립적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기 위 때문이다(김순귀·정동빈·박영술, 2003; 신혜섭 2007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도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려 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징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19~29세가 63.2%, 30~39세가 26.8%, 40~49세 8.2%, 50~59세 2.0%이었다. 월가구소득은 100만원 미만 4.3%, 100~200만원 11.8%, 200~300만원 19.4%, 300~400만원 18.0%, 400~500만원 17.7%, 500만원 이상 28.1%였다.

〈표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단위 : 명(%))

	문항	응답 수	
연령	19 ~ 24세	709	(35.5)
	25 ~ 29세	554	(27.7)
	30 ~ 34세	337	(16.9)
	35 ~ 39세	198	(9.9)
	40 ~ 44세	107	(5.4)
	45 ~ 49세	55	(2.8)
	50 ~ 54세	28	(1.4)
	55 ~ 59세	12	(0.6)
	계	2,000	(100.0)
월 가 구	100만원 미만	85	(4.3)
	100-200만원 미만	236	(11.8)
	200-300만원 미만	388	(19.4)

	문항	응답 수	
소득	300-400만원 미만	359	(18.0)
	400-500만원 미만	354	(17.7)
	500만원 이상	560	(28.1)
	기타	18	(0.9)

* 출처: 홍영오·연성진·주승희(2015),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294면. 재구성

조사대상자의 교제 당시의 연령비율은 10대 9.3%, 20대 63.2%, 30대 22.5%, 40대 4.7%, 50대 0.5%였다. 학력은 중졸 이하 1.0%, 고등학교 졸업이하 15.5%, 전문대졸 이하 14.0%, 4년제 대학 졸업 이사 62.8%, 대학원 석사 졸업 이하 5.2%, 대학원 박사 졸업 이하 1.6%였다. 교제 당시의 월 개인소득은 100만원 미만 29.0%, 100~200만원 24.1%, 200~300만원 20.0%, 300~400만원 8.4%, 400~500만원 4.6%, 500만원 이상 4.1%, 개인 수입이 없었던 경우 9.8%였다.

〈표2〉 교제 당시의 연령, 학력 및 월 개인소득

(단위 : 명(%))

	문항	응답 수	
연령	10대	185	(9.3)
	20대	1,264	(63.2)
	30대	449	(22.5)
	40대	93	(4.7)
	50대	9	(0.5)
학력	중학교졸업 이하	20	(1.0)
	고등학교졸업(재학,수료,중퇴 포함)	309	(15.5)
	전문대학 졸업(재학,수료,중퇴 포함)	280	(14.0)
	4년제 대학 졸업(재학,수료,중퇴 포함)	1,256	(62.8)
	대학원 석사졸업(재학,수료,중퇴 포함)	104	(5.2)
대학원 박사졸업(재학,수료,중퇴 포함)	31	(1.6)	
월 개인 소득	100만원 미만	579	(29.0)
	100-200만원 미만	481	(24.1)
	200-300만원 미만	399	(20.0)
	300-400만원 미만	168	(8.4)
	400-500만원 미만	92	(4.6)
	500만원 이상	80	(4.1)

	문항	응답 수	
		기타	5
	개인 수입 없음(없었음)	196	(9.8)
	계	2,000	(100.0)

* 출처: 홍영오·연성진·주승희(2015),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295면.

2. 전반적인 데이트폭력 실태

먼저 교제 중인 연인에게 최소 1번 이상 폭력을 가한 경험을 가해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연인을 통제된 경험이 전체 응답자의 71.7%로 가장 높았다. 심리적·정서적 폭력을 한 비율은 36.6%, 신체적 폭력의 비율은 22.4%, 성추행 비율은 37.9%, 성폭력 비율 17.5%, 상해 비율 8.7%로 나타났다. 교제 중인 연인에게 여러 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의 유형에 대해 한 번이라도 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593명으로 79.7%나 되었다. 이 중 통제행동을 제외하면 1,140명(57.0%)이 적어도 하나의 유형에 대해 한번 이상의 폭력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 가해유형별 가해경험 실태

(단위 : 명(%))

문항	응답 수	
	통제	1,433
심리적·정서적 폭력	732	(36.6)
신체적 폭력	448	(22.4)
성추행	758	(37.9)
성폭력	350	(17.5)
상해	174	(8.7)
계	2,000	(100.0)

* 출처: 홍영오·연성진·주승희(2015),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299면.

다음은 데이트 상대에 대한 폭력의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행동 통제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했다’는 경험이 43.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통화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전화했다’ 38.5%, ‘옷차림을 제한했다’ 36.3%, ‘다른 이성을 만나는지 의심했다’ 36.2%, ‘여자친구가 하는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 두게 한 적이 있다’ 33.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4〉 통제행동경험

(단위 : 명(%))

문항	가해경험
핸드폰, 이메일,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을 자주 점검했다.	561(28.0)
웃차림을 제한했다	727(36.3)
싸클이나 모임 활동을 못하게 했다	428(21.4)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했다	499(24.9)
통화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전화했다	771(38.5)
다른 사람과 통화하지 못하게 했다	375(18.7)
친구들을 못 만나게 했다	433(21.6)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했다	878(43.9)
다른 이성을 만나는지 의심했다	724(36.2)
내가 원하는 것을 여자친구가 싫어해도 하도록 만든 적이 있다	610(30.5)
여자친구가 하는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 두게 한 적이 있다.	664(33.2)

심리적·정서적 폭력 가해경험의 비율은 ‘화가 나서 발을 세계 구르거나 문을 세계 닫은 적이 있다’가 23.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향을 지르거나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 18.9%,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악의에 찬 말을 한 적이 있다’ 18.7%,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 18.5%의 순이었다.

〈표5〉 심리적·정서적 폭력 가해경험

(단위 : 명(%))

문항	가해경험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	371(18.5)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향을 지르거나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	378(18.9)
화가 나서 발을 세계 구르거나 문을 세계 닫은 적이 있다	462(23.1)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악의에 찬 말을 한 적이 있다	375(18.7)
상대방의 소유물을 던지거나 부순 적이 있다	206(10.3)
상대방을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한 적이 있다	327(16.3)
때리거나 물건을 부수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다	215(10.7)

신체적 폭력 가해경험의 비율은 ‘힘껏 움켜잡은 적이 있다’가 15.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팔을 비틀거나 꼬집은 적이 있다’ 12.8%, ‘(벽 쪽으로) 거칠게 밀친 적이 있다’ 8.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6〉 신체적 폭력 가해경험

(단위 : 명(%))

문 항	가해경험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던진 적이 있다	116(5.8)
팔을 비틀거나 꼬집은 적이 있다	256(12.8)
(벽 쪽으로) 거칠게 밀친 적이 있다	178(8.9)
힘껏 움켜잡은 적이 있다	312(15.6)
뺨을 때린 적이 있다	144(7.2)
발로 찬 적이 있다	125(6.2)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현대,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린 적이 있다	109(5.4)
심하게 마구 때린 적이 있다	119(5.9)
목을 조른 적이 있다	110(5.5)
뜨거운 물이나 불로 화상을 입힌 적이 있다	105(5.2)
칼(가위)이나 총 등 흉기로 위협한 적이 있다	106(4.3)
칼(가위)이나 총 등 흉기로 상해를 입힌 적이 있다	105(5.2)

성폭력 가해 경험의 비율은 ‘여자친구의 의사에 상관없이 가슴, 엉덩이 또는 성기를 만진 적이 있다’가 24.5%로 가장 높았고, ‘여자친구의 기분에 상관없이 키스를 한 적이 있다’ 24.2%, ‘여자친구가 원하지 않는데도 얼굴, 팔, 다리 등 몸을 만진 적이 있다’ 23.8%, ‘여자친구가 원하지 않는데도 애무를 한 적이 있다’ 17.9% 순이었다. 이에 비해 보다 심한 성폭력 유형인 ‘성관계를 하기 위해 잡거나 누르는 등의 원력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7.4%, ‘여자친구가 원하지 않은 성관계 동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와 ‘유사성교(구강성교 등)하기 위해 위협한 적이 있다’가 각각 5.4%씩이었다.

〈표7〉 성폭력 가해경험

(단위 : 명(%))

문 항	가해경험
여자친구가 원하지 않는데도 얼굴, 팔, 다리 등 몸을 만진 적이 있다	476(23.8)
여자친구의 기분에 상관없이 키스를 한 적이 있다	484(24.2)
여자친구가 원하지 않는데도 애무를 한 적이 있다	359(17.9)
여자친구의 의사에 상관없이 가슴, 엉덩이 또는 성기를 만진 적이 있다	490(24.5)
신체적 폭력을 쓰진 않았으나 여자친구가 원하지 않는 유사성교(구강성교 등)를 요구한 적이 있다	225(11.2)
신체적 폭력을 쓰진 않았으나 여자친구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요구한 적이 있다	235(11.7)
성관계를 하기 위해 잡거나 누르는 등의 원력을 사용한 적이 있다	149(7.4)
성관계를 하기 위해 때리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흉기를 사용한 적이 있다	90(4.5)
여자친구가 원하지 않은 성관계 동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	108(5.4)

문 항	가해경험
유사성교(구강성교 등)하기 위해 위협한 적이 있다	108(5.4)
성관계(성기삽입)하기 위해 위협한 적이 있다	105(4.2)

마지막으로 연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험의 비율은 상대방이 ‘뼈거나 멍이 들거나 살짝 상처가 났다’가 6.9%로 가장 높았고, ‘다음날까지 신체적 고통을 느꼈다’ 5.4%, ‘병원에 갈 정도로 아팠으나 가지는 않았다’ 4.0%,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3.9%였고, ‘기절했다’와 ‘뼈가 부러졌다’도 각각 3.5%, 3.3%나 되었다.

〈표8〉 상해 가해경험

(단위 : 명(%))

문 항	가해경험
뼈거나 멍이 들거나 살짝 상처가 났다	139(6.9)
다음날까지 신체적 고통을 느꼈다	109(5.4)
기절했다	71(3.5)
병원에 갈 정도로 아팠으나 가지는 않았다	81(4.0)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79(3.9)
뼈가 부러졌다	67(3.3)

3. 데이트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데이트폭력의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동시투입방법의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데이트 상대에 대한 통제경험에 대해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통제경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자존감, 회피애착, 불안애착, 폭력정당화, 성장기 아동학대피해경험, 경계선 성격장애, 교제당시의 나이차로 나타났으며, Wald값으로 판단하였을 때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은 불안애착요인이었으며, 다음은 폭력정당화, 경계선 성격장애의 순이었다. 즉 불안애착이 클수록, 폭력정당화가 높을수록, 경계선 성격장애 정도가 클수록 데이트 상대를 통제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에 대한 Nagelkerke R^2 값은 .115로서 통제경험은 독립변인들에 의해 11.5%가 설명되었다.

〈표9〉 통제경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B	S.E.	Wals	Exp(B)
자존감	.027	.012	5,578	1,028*
회피애착	-.020	.007	6,886	.981**
불안애착	.036	.006	38,893	1,037***
폭력정당화	.090	.019	23,105	1,094***
부모폭력목격	.031	.020	2,454	1,031
아동학대피해경험	.071	.023	9,856	1,074**
경계선성격장애	.026	.008	11,198	1,026**
교제당시나이차	.054	.021	6,632	1,055*
교육차	.003	.073	.002	1,003
본인수입	-.031	.118	.070	.969
교제기간	.002	.003	.506	1,002
상수항	-3,258	.820	15,782	.038
-2LL	2069,659			
Model chi-square	218,855***			
Nagelkerke R ²	.115			

* p <.05, ** p <.01 *** p <.001

데이트 상대에 대한 심리·정서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심리·정서적 폭력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자존감, 회피애착, 폭력정당화, 성장기 부모폭력 목격경험, 성장기 아동학대피해경험, 경계선 성격장애, 교제당시의 나이차, 및 교제기간으로 나타났으며, Wald값으로 판단하였을 때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은 폭력정당화요인이었으며, 다음은 교제기간, 경계선 성격장애, 성장기 부모상호간의 폭력 목격경험, 교제당시의 나이차, 성장기 아동학대피해경험의 순이었다. 즉 폭력정당화가 높을수록, 교제기간이 길수록, 경계선 성격장애 정도가 클수록, 성장기에 부모상호간의 폭력 목격경험이 많을수록, 교제당시의 나이차이가 클수록, 성장기에 아동학대피해경험이 많을수록 데이트 상대를 심리·정서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에 대한 Nagelkerke R² 값은 .228로서 심리·정서적 폭력은 독립변인들에 의해 22.8%가 설명되었다.

〈표10〉 심리·정서적 폭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B	S.E.	Wals	Exp(B)
자존감	.026	.011	5,576	1,027*
회피애착	.015	.007	4,148	1,015*
불안애착	.008	.006	1,875	1,008
폭력정당화	.098	.014	50,315	1,103***
부모폭력목격	.049	.015	10,240	1,050**
아동학대피해경험	.048	.016	8,837	1,049**
경계선성격장애	.034	.007	21,106	1,035***
교제당시나이차	.061	.019	9,889	1,063**
교육차	.105	.070	2,243	1,111
본인수입	.155	.118	1,726	1,167
교제기간	.013	.003	27,539	1,014***
상수항	-6,211	.816	57,924	.002
-2LL	2179,288			
Model chi-square	352,041***			
Nagelkerke R ²	.228			

* p <.05, ** p <.01 *** p <.001

데이트 상대에 대한 신체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신체적 폭력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폭력정당화, 성장기 부모폭력 목격경험, 성장기 아동학대피해경험, 경계선 성격장애, 및 교제기간으로 나타났다. Wald값으로 판단하였을 때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은 폭력정당화요인이었으며, 다음은 성장기 부모폭력목격경험, 경계선 성격장애, 성장기 아동학대피해경험, 교제기간의 순이었다. 즉 폭력정당화가 높을수록, 성장기에 부모상호간의 폭력 목격경험이 많을수록, 경계선 성격장애 정도가 클수록, 성장기에 아동학대피해경험이 많을수록, 교제기간이 길수록 데이트 상대를 신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에 대한 Nagelkerke R² 값은 .192로서 신체적 폭력은 독립변인들에 의해 19.2%가 설명되었다.

〈표11〉 신체적 폭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B	S.E.	Wals	Exp(B)
자존감	.006	.013	.259	1.006
회피애착	.003	.009	.093	1.003
불안애착	.010	.007	2.473	1.010
폭력정당화	.074	.014	27.866	1.077***
부모폭력목격	.047	.015	10.266	1.049**
아동학대피해경험	.044	.015	8.252	1.045**
경계선성격장애	.025	.008	9.041	1.026**
교제당시나이차	.036	.022	2.695	1.036
교육차	-.094	.079	1.394	.911
본인수입	.027	.135	.039	1.027
교제기간	.006	.003	4.519	1.006*
상수항	-4.836	.917	27.788	.008
-2LL	1790.962			
Model chi-square	258.932***			
Nagelkerke R ²	.192			

* p <.05, ** p <.01 *** p <.001

데이트 상대에 대한 성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성적 폭력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폭력정당화, 성장기 아동학대피해경험, 경계선 성격장애, 교제당시의 나이차, 교제당시의 본인수입으로 나타났다. Wald값으로 판단하였을 때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은 폭력정당화요인이었으며, 다음은 경계선 성격장애, 성장기 아동학대피해경험, 교제당시의 나이차, 교제당시의 본인수입의 순이었다. 즉 폭력정당화가 높을수록, 경계선 성격장애 정도가 클수록, 성장기에 아동학대피해경험이 많을수록, 교제당시의 나이차이가 클수록, 교제당시 본인수입이 많을수록 데이트 상대를 성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에 대한 Nagelkerke R² 값은 .193로서 성적 폭력은 독립변인들에 의해 19.3%가 설명되었다.

〈표12〉 성폭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B	S.E.	Wals	Exp(B)
자존감	-.003	.014	.033	.997
회피애착	.003	.009	.076	1.003
불안애착	.004	.007	.354	1.004
폭력정당화	.090	.015	37.950	1.094***
부모폭력목격	.022	.016	1.966	1.022
아동학대피해경험	.048	.016	8.602	1.049**
경계선성격장애	.033	.009	12.718	1.034***
교제당시나이차	.049	.023	4.342	1.050*
교육차	.032	.087	.135	1.033
본인수입	.314	.155	4.125	1.369*
교제기간	.002	.003	.225	1.002
상수항	-5.221	1.005	26.985	.005
-2LL	1552.797			
Model chi-square	239.123***			
Nagelkerke R ²	.193			

* p <.05, ** p <.01 *** p <.001

데이트 상대에 대한 상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상해경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폭력정당화, 성장기 아동학대피해경험, 경계선 성격장애로 나타났으며, Wald값으로 판단하였을 때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은 폭력정당화요인이었으며, 다음은 경계선 성격장애, 성장기 아동학대피해경험의 순이었다. 즉 폭력정당화가 높을수록, 경계선 성격장애 정도가 클수록, 성장기에 아동학대피해경험이 많을수록 데이트 상대에게 상해를 입힐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에 대한 Nagelkerke R² 값은 .273로서 상해경험은 독립변인들에 의해 27.3%가 설명되었다.

〈표13〉 상해경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B	S.E.	Wals	Exp(B)
자존감	-.002	.019	.011	.998
회피애착	.006	.014	.212	1.006
불안애착	-.007	.010	.530	.993

	B	S.E.	Wals	Exp(B)
폭력정당화	.107	.018	34.033	1.113***
부모폭력목격	.026	.019	1.783	1.026
아동학대피해경험	.070	.019	12.830	1.072***
경계선성격장애	.049	.013	13.854	1.050***
교제당시나이차	.032	.032	.975	1.032
교육차	-.093	.121	.596	.911
본인수입	.191	.217	.778	1.211
교제기간	.007	.004	2.808	1.007
상수항	-7.055	1.412	24.976	.001
-2LL	901.142			
Model chi-square	253.185***			
Nagelkerke R ²	.273			

* p <.05, ** p <.01 *** p <.001

V. 결론

본 연구는 데이트폭력의 가해실태와 가해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혔다.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데 비해, 본 연구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가해행동을 크게 통제행동, 심리적·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추행, 성폭력, 상해 등으로 구분하여 실태를 분석한 결과, 통제경험이 71.7%로 가장 높았고, 성추행 37.9%, 심리적·정서적 폭력 36.6%, 신체적 폭력 22.4%, 성폭력 17.5%, 상해 8.7%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제행동의 비율이 71.7%나 될 정도로 높다는 것은 남성들이 이를 폭력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한국사회에 가부장적 태도가 아직도 많은 남성들에게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므로 가부장적 태도가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데이트폭력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홍영오 등, 2015) 결과, 남성들은 통제행동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으나 피해자들 중에는 상대방의 통제행동에 대해 ‘헤어지자’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있으며, 통제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에 대해 더욱 폭력적인 방식으로 반응을 보인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의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자들에 따라서는 통제행동을 데이트폭력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기도 하지만 피해자들의 반응이나 신체적 폭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통제행동을 데이트폭력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해행동 유형별로 살펴보면, 통제행동의 경우 ‘누구와 함께 있는 지 항상 확인했다’는 경험이 43.9%로 가장 높았고, 심리적·정서적 폭력 가해경험의 비율은 ‘화가 나서 발을 세계 구르거나 문을 세계 닫은 적이 있다’가 23.1%로 가장 높았다. 신체적 폭력 가해경험의 비율은 ‘힘껏 움켜잡은 적이 있다’가 15.6%로 가장 높았고, 성폭력 가해 경험의 비율은 ‘여자친구의 의사에 상관없이 가슴, 엉덩이 또는 성기를 만진 적이 있다’가 24.5%로 가장 높았다. 마지막으로 연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험의 비율은 상대방이 ‘빠거나 멍이 들거나 살짝 상처가 났다’가 6.9%로 가장 높았다.

데이트 상대에 대한 가해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폭력유형에 따라 차이가 났다.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통제경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자존감, 회피애착, 불안애착, 폭력정당화, 성장기 아동학대피해경험, 경계선 성격장애, 교제당시의 나이차로 나타났으며, Wald값으로 판단하였을 때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은 불안애착요인이었다. 심리·정서적 폭력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자존감, 회피애착, 폭력정당화, 성장기 부모폭력 목격경험, 성장기 아동학대피해경험, 경계선 성격장애, 교제당시의 나이차, 및 교제기간으로 나타났으며, Wald값으로 판단하였을 때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은 폭력정당화요인이었다. 신체적 폭력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폭력정당화, 성장기 부모폭력 목격경험, 성장기 아동학대피해경험, 경계선 성격장애, 및 교제기간으로 나타났으며, Wald값으로 판단하였을 때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은 심리·정서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폭력정당화요인이었다. 성적 폭력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폭력정당화, 성장기 아동학대피해경험, 경계선 성격장애, 교제당시의 나이차, 교제당시의 본인수입으로 나타났으며, Wald값으로 판단하였을 때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은 역시 폭력정당화요인이었다. 상해경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폭력정당화, 성장기 아동학대피해경험, 경계선 성격장애로 나타났으며, Wald값으로 판단하였을 때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은 다른 유형과 마찬가지로 폭력정당화요인이었다.

개인적 요인으로 살펴보면, 자존감과 회피애착은 통제경험과 심리적·정서적 폭력에만 영향을 미쳤고, 불안애착은 통제경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폭력에 대한 정당화와 성장기 아동학대피해경험 및 경계선 성격장애는 모든 유형의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폭력에 대한 태도가 데이트 상대에 대한 폭력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은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심지어 사소한 경우이라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비폭력 교육이 어린 시절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성장기 아동학대피해경험 역시 모든 유형의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어린 시절 폭력 경험이 아닌 폭력의 피해경험이 성인기의 가해행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즉 아동기의 폭력피해 경험은 성인기 폭력피해의 위험요인(Maker, Kimmelmeier, & Peterson, 1998; Murphy, 2011)이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폭력의 가해요인으로도 작용하므로 아동기 때의 학대피해자 또는 폭력범죄피해자는 조기에 상담과 심리치료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장기 부모의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많을수록 심리적·정서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부모 상호간의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많을수록 성인기 관계에서도 이런 폭력행동을 채택하고 모방할 가능성이 높고, 이성친구 또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폭력행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성인을 대상으로 데이트 관계에서의 가해행동의 실태를 알아보고, 교제중인 연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동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 및 태도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데이트폭력의 가해행동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 또한 폭력에 대한 정당화 정도를 개인적 태도요인으로 보고 하나의 독립변인으로 분석하였으나, 다른 개인적 요인과 달리 매개요인으로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폭력정당화 정도는 모든 폭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는데 경로분석 또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성장기 부모의 폭력에 대한 목격경험이나 아동기 학대피해경험 등이 폭력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매개요

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데이트폭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성장기 어린 시절의 피해경험이나 부모의 폭력을 목격한 경험 및 경계선 성격장애가 가해행동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이들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적절한 지원대책이 시급하다.

참고문헌

- 김순기·정동빈·박영술 (2003). SPSS를 활용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이해와 응용. SPSS아카데미
- 김예정·김득성 (1999). 대학생들의 데이팅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1)-가해자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10), 27-42.
- 서경현 (2002). 청소년들의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대한 사회학습적 변인들과 분노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 1-15.
- 서경현 (2004).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가정폭력 피해와 데이트폭력간의 관계에 대한 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1), 147-162.
- 서경현 (2009). 이성관계에서 행해지는 데이트폭력에 관한 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4), 699-727.
- 서경현·김봉진·정구철·김신섭 (2001). 대학생들의 연애평력과 예측변인, 대한여성건강학, 2, 75-98.
- 서경현 · 이영자 (2001). 고등학생들의 연애평력에 대한 예측변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2), 91-106.
- 손혜진 · 진귀연 (2003). 미혼 남녀의 개인적, 관계적, 상황적 변인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2), 43-63.
- 신혜섭 (2007). 데이트폭력 피해의 위험요인. 한국가족복지학, 12(2), 149-170.
- 신혜섭 · 양혜원 (2005). 청소년 초기의 이성친구에 대한 신체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청소년학연구, 12, 299-323.
- 안귀여루 (2006).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심리 사회적 위험요인들에 대한 연구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4), 706-726.
- 유선영 (2000). 여대생의 가정폭력 피해와 데이트폭력 피해간의 매개 요인에 관한 연구: 데이트폭력 허용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화영 (2015).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관계 중단 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 의전화 부설 한국여성주의상담실천연구소 제14회 논문발표회.
- 장희숙·조현각 (2001). 대학생 이성교제폭력의 실태와 위험요인들. 한국가족복지학,

8, 179-204.

- 조인형·김영희 (2009). 대학생의 교제변인, 애착유형, 데이트관계의 질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논총*, 13(1), 105-124.
- 홍상황·김영환 (1998).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259-271.
- 홍영오·연성진·주승희(2015).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황경옥 (2001). 대학생의 애착유형과 자아정체감 및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lexander, P. C., Moore, S., & Alexander, E. R. (1991). What is transmitted in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viol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3), 657-667.
- Anderson, K. M., & Danis, F. S. (2007). Collegiate sororities and dating violence: An exploratory study of informal and formal helping strategies. *Violence Against Women*, 13, 87-100.
- Babcock, J. C., Jacobson, N. S., Gttman, J. M., & Yerington, T. P. (2000). Attachment, Emotional Regulation, and the Function of Marital Violence : Differences Between Secure, reoccupied, and Dismissing Violent and Nonviolent Husband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5(4), 391-409.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New York: General Learning Press.
- Bookwala, J., & Zdaniuk, B. (1998). Adult attachment styles and aggressive behavior with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 Personal Relationships*, 15(2), 175-190.
- Bowlby, J. (1969). *Attachment. Attachment and loss: Vol. 1. Loss*. New York: Basic Books.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46-76.

- Chambers, A. L., & Wilson, M. N. (2007). Assessing male batterers with the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8, 57-65.
- Cornelius, T. L., & Resseguie, N. (2007). Primary and secondary prevention programs for dating violence: A review of the literatur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2(3), 364-375.
- Cicchetti, D., & Howes, P. W. (1991).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Illustrations from the study of child maltreatment.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23, 257--281.
- Dardis, C. M., Dixon, K. J., Edwards, K. M., & Turchik, J. A. (2014). An Examination of the Factors Related to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Among Young Men and Women and Associated Theoretical Explanations: A Review of the Literature, *Trauma, Violence, & Abuse*, 16(2), 136-152.
- Dutton, D.G., Saunders, K., Starzomski, A., & Bartholomew, K. (1994). Intimacy-anger and insecure attachment as precursors of abuse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4(15), 1367-1386.
- Follette, V. M., & Alexander, P. C. (1992). Dating violence: current and historical correlates. *Behavioral Assessment*, 14, 39 - 52.
- Foo, L., & Margolin, G. (1995). A multivariate investigation of dating aggression, *Journal of Family Violence*, 10(4), 351-377.
- Hamby, S. L., & Sugarman, D. B. (1999). Acts of psychological aggression against a partner and their relation to physical assault and gender.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61, 959-970.
- Holtzworth-Munroe, A., & Stuart, G. L. (1994). Typologies of male batterers: Three subtypes and differences among them. *Psychological Bulletin*, 116, 476--497.
- Jezele, D. R., Molider, C. E., & Wright, T. L. (1996). Physical, sexual, and psychological abuse in high school dating relationships, *Child, and*

-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1(1), 69-87.
- Kesner, J. E., Julian, T., & McKenry, P. C. (1997). Applications of attachment theory to male violence toward female intimat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2(2), 211-228.
- Lehmer, A. L. (2011). *A mixed-method Analysis of women's intimate partner violenc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Lloyd, S.A., Koval, J., & Cate, R. (1989). Conflict and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In M.A. Pirog-Good & J. E. Stets(eds.),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Emerging Social Issues* New York: Praeger, 127-142.
- Luthra, R., & Gidycz, G. (2006).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men and women: Evaluation of a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1(6), 717-731.
- Makepeace, J. M. (1981). Courtship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Family relations*, 97-102.
- Maker, A. H., Kemmelmeier, M., & Peterson, C. (1998). Ling-term psychological consequences in women of witnessing parental physical conflict and experiencing abuse in childhood,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3(5), 574-589.
- Mauricio, A. M., & Gormley, B. (2001). Male Perpetration of Physical Violence Against Female Partners The Interaction of Dominance Needs and Attachment Insecurity.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6(10), 1066-1081.
- Mauricio, A. M., Tein, J. Y., & Lopez, F. G. (2007). Borderline and antisocial Personality scores as mediators between attachment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Violence and Victims*, 22, 139-157.
- Morey, L. C. (1991).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AI)*. PAR.
- Murphy, L. M. (2011). Childhood and Adolescent Violent Victimization and the Risk of Young Adult Intimate Partner Violence Victimization, *Violence*

and Victims, 26(5), 593-607.

- Murphy, C.M., & O’Leary, D. K. (1989). Psychological aggression predicts physical aggression in early marriag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 579–582
- O’Keefe, M. (1997).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4), 546-568.
- Riggs, D. S., & O’Leary, K. D. (1989). *A theoretical model of courtship aggression*. New York, NY, England: Praeger Publishers,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 Smith, J. P., & Williams, J. G. (1992). From abusive household to dating violence, *Family Relations*, 7, 153-165.
- Shorey, R. C., Cornelius, T. L., & Bell, K. M. (2008). A critical review of theoretical frameworks for dating violence: Comparing the dating and marital fields, *Aggression & Violent Behavior*, 13, 185-194.
- Stets, J. E., & Pirog-Good, M. A. (1987).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0, 237-246.
- Straus, M. A. (2004). Prevalence of Violence Against Dating Partners by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Worldwide, *Violence Against Women*, 10, 790-811.
-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Sugarman, D. B., & Hotaling, G. T. (1989). Violent men in intimate relationships: An analysis of risk marker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9, 1034–1048.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0). *Preventing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Taking action and generating evidence*.

Risk Factors for the Perpetration Adults Dating Violence

Hong, Young-o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evalence of dating violences among adults and to inquire the predictors of these violent behaviors. An internet survey sampled 2,000 adults who are or have experienced being in a relationship is designed and conducted to explore the dating abuses by measuring specific types of incidents, respondent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their varied attitude factors. And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Among the respondents, those who have inflicted controlling behavior over the victims are 71.7%, psychological-emotional violence 36.6%, physical violence 22.4%, sexual harassment 37.9%, sexual violence 17.5%, injury 8.7%, (2) Significant predictive factors differ by the types of dating violences. Among the factors, 'justification of violence,' 'childhood abuse victimization,'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re the most common for the violent behaviors. Based upon the results, implications for policy were discussed.

❖ Keyword: dating violence, Justification of Violence, childhood abuse victimizatio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투고일 : 6월 7일 / 심사일 : 6월 16일 / 게재확정일: 6월 16일

* Research Fellow,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Ph. D. in Psychology